

# 5·18은 매력적인 콘텐츠...글로벌 관광상품으로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 건너편에 자리한 알링턴 국립묘지 전경. 묘역에 안장된 전사자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을 계승하는 다양한 불거리와 프로그램으로 연중 참배객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워싱턴 D.C=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 <3>

### (1부)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 ② 5월정신과 유적지

지난해 4월 중순 기자는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과 유적지를 취재하기 위해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워싱턴 D.C 포토맥 강 건너편에 자리한 알링턴 묘지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전사들을 기리고 자유와 평등 이념을 고취시키는 미국 최고의 사적지다. 75만 평의 대지에 조성된 묘지에는 1963년 암살당한 고(故)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무명용사 등 28만7000여 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남북전쟁과 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수많은 전장(戰場)에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지킨 ‘영웅’들이 미 전역에서 온 후손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기자의 눈에 비친 알링턴 묘지는 한적하고 침울한 분위기의 공동묘지가 아니었다.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경관은 생태공원을 떠올리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특히 넓은 녹지와 휴식공간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1~2시간 쉼머물면서 산책을 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불라도 평일 낮 시간인데도 묘지는 참배객들과 관광객들로 크게 붐볐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묘지를 둘러보며 여유를 즐기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알링턴 묘지 정문을 지나 안내센터에 도착하면 남북전쟁과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등을 담은 다양한 사진과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다. 경건한 분위기 속



지난 2010년 5·18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뮤지컬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

묘지는 ‘매일이 메모리얼 데이’라는 점에서 ‘때가 되면 찾는’ 국립 5·18 민주묘지(이하 5·18 묘지)와는 사뭇 다르다.

국립묘지 승격 10주년을 맞은 올해도 기념식을 필두로 각종 인사들과 유가족들의 헌화,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졌다. 하지만 알링턴 묘지와 달리 5·18 묘지는 5월이 지나면 적막해진다. 민주성지인 5·18 묘지가 이렇듯 대항쟁의 발화지인 전남대 정문 등 광주 시내의 주요 5월 유적지들은 말할 것도 없다.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온 참배객들은 5·18 묘지를 둘러 본 후 5월항쟁의 숭고한 가치를 느낄 만한 불거리를 접하지 못하고 광주를 떠난다. 또한 5월 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는 5월 관련단체들이 5·18 주간엔 펼쳐는 전야제와 전시회, 학술

### 5·18 묘지 5월만 지나면 적막장산

### 전야제·학술대회 등 추모행사 빈약

에서도 이들 영상물과 전시회를 보기 위해 공연장과 갤러리 앞에서 줄 서 있는 방문객들의 긴 행렬은 마치 테마파크를 연상케 했다.

특히 무명용사의 묘역(Tomb of Unknowns) 앞에서 매일 1시간 간격으로 펼쳐지는 위령교대식은 주요 불거리중의 하나다. 알링턴 묘지는 나라를 위해 이름없이 죽어간 용사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무명용사의 묘 앞에 백색 대리석 기념비를 세우고 육군위병들을 24시간 배치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위병들의 절도있고 엄숙한 의식을 지켜보며 나라사랑의 가치를 새삼 확인한다.

‘경의를 표하고(honor), 기억하고(remember), 찾아나선다(explore)’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알링턴 묘지는 매년 500만 명이 찾는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명소다. 특히 공휴일인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5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미 전역에서 온 참배객들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날 오후 3시 알링턴 묘지에서 열리는 공식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과 각계 인사,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해 묘역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한다. 기념식이 끝나면 참석자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뜰로 자리를 옮겨 전몰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대규모 추모 콘서트에 참가한다. 대통령과 시민들이 하나가 된 추모음악회는 전국에 생중계된다.

알링턴 묘지 뿐만이 아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미국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링컨기념관, 워싱턴모뉴먼트(조지 워싱턴 대통령 추모 기념탑), 백악관, 제퍼슨 기념관 등이 밀집된 내셔널 몰(national mall)과 베트남 전쟁추모공원, 한국전쟁기념관 등은 미국이 자랑하는 사적지이자 랜드마크다. 다양한 불거리와 ‘공간’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는 일년 내내 추모객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인다.

해마다 5월이 되면 5·18묘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메모리얼 데이와 같은 특별한 날의 이벤트는 5·18 기념일의 그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알링턴

### 유적지 연계 메모리얼 투어 만들고

### 브랜드 공연 등 제작...‘일상화’ 필요

대회 등이 고작이다.

5월을 예술로 승화시킨 문화행사 역시 빈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향의 기념음악회를 비롯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합창단 등 5·18 3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올해도 열렸지만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돼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5월기간이 끝나면 80년 5월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상설 공연이 거의 없어 ‘5월의 생활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5·18을 주제로 한 브랜드 공연의 부재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지난 30여년 동안 영화 ‘꽃잎’에서부터 ‘화려한 휴가’에 이르기까지 5월을 소재로 한 영화와 뮤지컬이 제작됐지만 언제나 볼 수 있는 상설공연이 없어 ‘그날’의 감동을 심어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제는 5월 항쟁의 유적지들을 연계한 메모리얼 투어와 5·18을 소재로 한 브랜드 공연 등 연중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처럼 5·18 묘지, 구 전남도청 별관 등 오월 유적지, 그리고 내년 말에 문을 여는 목포의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을 묶어 글로벌 명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80년 5월 항쟁은 국내에서 ‘볼할 수 있는’ 광주만의(Only Gwangju)의 소중한 자산이자 매력있는 콘텐츠다”면서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5·18 사적지와 알링턴 묘지 역사문화마을 등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현 문화전문 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광주CBS 1961-2012 50주년 기념

한 여자의 실종, 세 명의 의뢰인  
완벽한 거짓은 완벽해 보이는 진실 뒤에 숨어있다!

2012년 6월 2일(토) - 3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주최 광주CBS

MUSICAL  
실종음모

협찬 KJB 광주은행 SAMSUNG 삼성생명 NH 농업중앙회 오앤에스